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2차
- 인문계열(경제경영)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및 제시문	1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3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제시문 (나), (다), (라)를 이용하여 제시문 (가)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제시문 (마)와 (바)를 이용하여 제시문 (가)의 정책을 평가하시오.

제시문

(가)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또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자진 신고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적어도 상대방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으려고 차선책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1순위로 신고한 기업은 완전 면제, 2순위는 일부 면제, 3순위부터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 빨리 신고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재구성)

(나)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독과점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 담합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담합이란 기업들이 서로 짜고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위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재구성)

(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기업과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장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직접 해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경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준사법 기관으로서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재구성)

(라) 경제학의 게임이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사례 중의 하나가 ‘용의자의 딜레마’이다. 두 명의 범죄 용의자가 각각 다른 방에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 둘 다 아주 적은 벌금을 받게 된다. 둘 다 혐의를 시인하면 약간의 벌금을 받는다. 그런데 한 사람만 혐의를 시인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면 혐의를 시인한 사람은 벌금이 없고,

부인한 사람은 매우 많은 벌금을 받는다.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결국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시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혐의를 시인하고, 자기만 부인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두 사람 모두를 생각할 때 둘 다 혐의를 부인하고 아주 적은 벌금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둘 다 혐의를 시인하여 보다 많은 벌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혐의를 시인하는 의사결정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점이다.

(『한국경제』, 2004년 2월 17일 재구성)

(마) 용의자 ‘갑’·‘을’이 동떨어진 공간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낮은 형을 부과받지만, 상대가 먼저 자백하면 더 높은 형이 내려진다. 딜레마에 빠진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자백한다. 이른바 ‘용의자의 딜레마’다. 여기서 조건을 살짝 비틀어보자. ‘을’보다 ‘갑’에게 자백할 하루의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다. 결정의 순간까지 24시간의 여유를 먼저 확보한 ‘갑’은 ‘을’의 취조 직전 자백을 결심하고 낮은 형을 확정지었다고 치자. 이것은 공정한가. 게다가 ‘갑’이 주범이란 조건까지 덧붙여보자. 공정하다고 볼 사람이 과연 있는가. 용의자의 딜레마는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리니언시 제도’의 기본원리다. 공정 거래 위원회가 6년에 걸친 생명보험사 16곳의 담합을 적발하는 데에는 리니언시 제도가 주효했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확정되자 반성해야 할 중소형 생명보험사 9곳은 오히려 냉가슴을 앓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초대형 생명보험사 3곳(빅3)이 리니언시를 먼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매일경제』, 2012. 1. 1. 재구성)

(바)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담합 적발 및 예방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 점차 늘어나는 국제교류와 국제카르텔의 적발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만 ‘리니언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담합 사건은 ‘용의자’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담합 적발과정에 있어 담합사실의 입증은 담합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함에도, 담합 적발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논의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머니투데이』, 2014. 7. 31. 재구성)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사회’, ‘경제’ 교과목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시장 실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시문을 통해 시장 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내에서 자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한편, 특히 특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 방지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를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사실의 입증과 규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담합 가담자들로 하여금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하여 담합 문제를 해결한다. 이 문항은 복수의 제시문에서 설명된 리니언시 제도의 특성과 순기능 및 역기능을 파악하여 논리적 절차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정의하고, 담합 가담자가 자진 신고 시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가 감면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출처: (주)천재교육, 90쪽, 관련 개념: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제시문 (나)는 불완전 시장이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에 대해 설명하고, 그 예로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출처: (주)지학사, 144쪽, 관련 개념: 시장의 실패)

제시문 (다)는 시장경제 내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특히 독과점 시장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설명한다.

(출처: (주)비상교육, 139쪽, 관련 개념: 정부의 역할)

제시문 (라)는 경제학의 게임이론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의자의 딜레마’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 공조가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보다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임을 제시한다.

(출처: “죄수의 딜레마와 경제리더십” 2004년 2월 17일 한국경제 시론, 관련 개념: 용의자의 딜레마)

제시문 (마)는 ‘리니언시 제도’의 맹점을 비판하는데,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했는가 여부에만 따라 주범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제재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대기업에서 주로 얻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죄수의 딜레마와 공정성”, 2012년 1월 1일 매일경제 기사, 관련 개념: 리니언시 제도)

제시문 (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의 장점인 담합 입증 능력

과 예방효과와 같은 순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출처: “리니언시” 제도와 담합의 입증” 2014년 7월 31일 머니투데이 칼럼, 관련 개념: 리니언시 제도)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채점기준]

- 제시문 (가)로부터 리니언시 제도의 의미와 운영 방식에 대해 파악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나)에서 소개된 시장 실패 및 담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제시문 (다)로부터 시장 경제 내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입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독과점 상황 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라)에서 설명된 용의자의 딜레마의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리니언시 제도의 작동 원리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마)로부터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제재 감면에 있어서 자진 신고의 순서만 고려하고 담합에 있어 주범·공범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하고 있는가? 제시문 (바)로부터 리니언시 제도의 순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유의사항]

- 제시문 (가)는 리니언시 제도라는 개념과 실제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시문 (나), (다)에서 시장의 실패와 시장 실패 시 정부의 개입을 독과점에 따른 시장 실패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제시문 (가), (다)에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담합 제재를 위해 사용하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시문 (가)의 리니언시 제도가 제시문 (라)에서 설명된 용의자의 딜레마의 상황에 처한 용의자들의 행동 방식에 의거하여 설계되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음
- 제시문 (마)는 리니언시 제도의 단점을, (바)는 리니언시 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음

4. 예시답안

제시문 (가)는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기업에 한하여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 주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으로 하여금 누가 먼저 자진 신고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적어도 상대방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기 위한 차선책으로 자진 신고를 하도록 유인하는데, 이는 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용의자의 딜레마’의 상황과 유사하다. 즉, ‘용의자의 딜레마’에서와 같이 담합에 가담한 기업으로 하여금 담합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선택이 되도록 리니언시 제도는 설계되었다.

제시문 (나)는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에 대해 설명하며, 독과점 시장에서의 담합을 그 예로써 든다. 담합이란 독과점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들이 공모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교란한다. 제시문 (다)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확립하여 기업과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불공정 행위의 규제를 그 사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시문 (가)의 리니언시 제도도 담합을 제재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수단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에 있어서, 오로지 자진 신고를 누가 먼저 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범인지 공범인지와는 무관하게 제재를 감면해 주는 맹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 도입 이후 주범 내지 대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제시문 (바)는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과정에 있어 담합사실의 인지는 물론 입증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담합 예방 효과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순기능을 설명한다.